

세이프가드에도 ‘꿇꿇’... 이젠 프리미엄으로 날아오른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해외 수출 감소로 인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메트로신문은 주요 산업별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주)

2019 업종전망

① 전자가 희망이다

美 보호무역 거센 압박에도 올해 3분기 업계 최대실적 제품 고도화·가치소비 영향 스타일러 등 다양한 호재 기대

연초만 해도 전문가들은 올해 전자 업종 성장 곡선이 한풀 꺾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보호무역 확대와 반도체 고점 논란 등이 악재로 지목됐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3분기 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했고, 내년에도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은 상태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내실을 다진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가전, 세이프가드로 수혜

상반기 전자 업계는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미국이 국산 세탁기를 겨냥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가전 부문 타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과는 반대였다. LG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을 1조1078억원 달성하며 전년비 20.2%나 실적을 더 올렸다. 삼성전자 CE 부문이 전년보다 26.3% 줄어든 영업이익 2800억원을 기록했지만, 세탁기 등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었다. 원자재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이 영업이익을 축소했을 뿐이었다. 비결은 철저한 준비였다. LG전자는 1

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미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시나리오 대로 대응했다”고 호실적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이미 현지 공장 가동율을 높이면서 변화에 대응한 후였다.

오히려 미국 가전 업체 월풀은 순이익이 전년보다 60% 이상 폭락한 9400만달러에 머물면서 위기를 가속화했다. GE도 11억8000만달러 순손실을 나타내면서 세이프가드 수혜를 전혀 입지 못했다.

◆프리미엄 TV 성장 본격화

TV 시장에도 올해는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고 내년 도약을 준비하는 기세였다. 크고 고급스러운 제품이 인기를 빠르게 늘리면서다.

특히 OLED TV는 올해 전체 TV 시장에서 점유율 1%를 돌파하는 성과를 올릴 전망이다. 소니 등 글로벌 가전사들이 새로 OLED 노선을 선택하면서다.

OLED 시장을 이끌어온 LG전자는 TV 시장에서 단연 최고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2013년 OLED TV를 시작한 후 지



올해 TV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OLED TV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8K QLED를 내놓고 1위 수성에 나섰다. 사진은 삼성전자 8K QLED TV와 한총희 삼성전자 사장. /삼성전자



LG전자의 프리미엄 브랜드 시그니처는 미국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에 가전 업계 최초로 입점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 /LG전자

속된 적자에도 공을 들여온 덕분에, 가장 높은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70%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연말까지 OLED TV를 192만대 가량 판매할 예정이다. 하반기 성수기를 맞아 마케팅을 가속화하면서 200만대 돌파 가능성도 점쳐진다. LG전자 TV 매출에서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약 20%에서 올해 약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여전한 TV 시장 1위다. IH 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매출 기준 TV 시장을 28.9% 점유하고 있다. LG전자가 16.8%로 차이가 적지 않다.

다만 OLED TV에 빠르게 추격당하는 상황이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QLED 점유율이 OLED TV에 밀려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 가전 새 트렌드로

프리미엄 바람은 가전 시장에도 함께 불었다. 가전제품이 고도화되는 데다, 1인 가구 증가 및 ‘가치 소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장규모가 18조원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LG전자 시그니처는 올해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주도해왔다. 2016년 론칭 후 꾸준히 시장을 공략해 프리미엄 가전 시장 대표 브랜드로 거듭났다. 미국 고급 백화점인 블루밍데일스에 가전 브랜드 최초로 입점하는 등 자리를 확고히 했다.

편의성을 위한 가전 인기도 크게 치솟았다. 의료관리 가전 원조격인 LG전자 스타일러가 전년비 2배 가량 판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 에어드레서 등도 뒤를 따르고 있다. 건조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16kg 대형 제품까지 속속 출시됐다.

건강 가전도 각광받았다. 중국을 중심

으로한 동아시아에서 현상이 두드러졌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이슨이 신형 제품인 핫앤쿨을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우선 들어오기도 했다.

LG전자는 오브제로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했다. 가전과 가구의 결합이다. 우선 TV와 오디오,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4개 제품을 출시했다. 가전에 수납 공간을 결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문 제작 형태로 고급감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가전 시장은 악재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해 좋은 실적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며 “오랜 노력이 일궈낸 성과다. 내년 전자 시장은 다양한 호재를 통해 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행복GPS’ 보급대상 확대

SK하이닉스가 ‘행복GPS’ 지원을 확대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경찰청과 함께 ‘행복GPS’ 보급 대상을 발달장애에 계층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GPS는 기억장애 계층을 보호하고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웨어러블 배회감지기다. 2017년 8월부터 치매 어르신 1만명에 무상 지원됐고, 2020년까지 5000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행복GPS는 도입 후 치매어르신 49명을 실종 후 무사히 귀가시키는 실적을 세웠다. 실종에서 발견까지 소요시간도 12

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경찰청은 2019년까지 삼십실종신고 고위험군 발달장애인에 행복GPS를 2000대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500명에는 12월 우선 보급한다.

김향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종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 발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체 치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티웨이항공 항공기

/티웨이항공

티웨이 베트남 하늘길, LCC 중 최다 운영

티웨이항공은 인천~부산~하노이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LCC(저비용항공사) 중 베트남 노선을 가장 많이 운영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오는 20일에는 인천~하노이 노선, 22일에는 부산~하노이 노선의 신규 취항식을 개최한다. 기존 5개 노선(인천~호찌민, 인천~대구~부산~다낭)을 더하면 베트남 노선은 총 7개로

늘어나 LCC 중 최다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티웨이의 베트남 노선 탑승률은 평균 85%가 넘는다.

티웨이항공은 대구~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지방발 노선의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어디서나 베트남으로 떠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지난 6월 국내 LCC 중 최초로 베트남 현지 고객실승무원을 채용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IMO 규제 압박... 선복량 증가율 둔화될 듯

(국제해사기구)

스크러버 설치·저유황유 사용해야 일정기간 운항 불가능·고단가 발목

2020년에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내년 드라이벌크 선복량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2018년 선복량 증가율은 드라이벌크운임지수(BDI) 상승으로 당초 예상보다 폐선 규모가 축소되면서 상승했다. 반면 오는 2019년 드라이벌크 선복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하게 되면 선박 연료의 황 함량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선사들은 스크러버(황산화물저감장치) 장착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경우 설치를 위해 일정 기간 선박 운항이 불가능하다. 고단가의 저유황유로 전환하는 방식을 결정하더라도 선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속 운항이 불가피하다. 특히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선박은 스크러버를 설치하더라도 비용 회수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폐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유류황중량 인상에 따른 드라이벌크 운임지수(BDI)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선사들이 고단가의 저유황유 투입을 통한 비용 상승분을 운임에 전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수급 조건이 필수적이다.

반면 해상물동량 증가율은 전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여파에도 선복량 증가율을 웃돌 거라는 진단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LG그램 17’ 내일부터 예약판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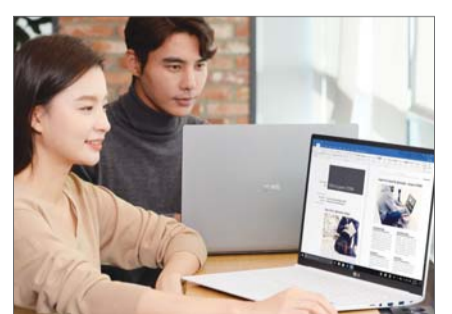
LG전자가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19년형 LG 그램 신제품인 ‘LG 그램 17’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LG전자는 기존 13.3, 14, 15.6인치에 이어 17인치 모델인 LG 그램 17을 앞세워 대화면 노트북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 그램 17은 화면 크기는 커졌지만 무게는 1340g이다. 13인치대 노트북 무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 중인

17인치대 노트북 가운데 가장 가볍다.

LG 그램 17은 2560×1600 해상도의 WQXGA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구현한다. 얼마나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규격인 sRGB 기준 96% 수준을 구현해 색 표현도 정확하다.

이 제품의 화면 비율은 16:10이다.



16:9 비율보다 아래쪽에 숨겨진 화면을 더 보여줘 사진·영상 편집, 문서 작업 등이 더 편리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